

庚午年 새해를 맞아...

경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관계기관과 회원사 임직원,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79년 1월 창간 이래 외국의 무기체제와 국내의 업계동향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자주국방 건설에 一助를 해온 〈國防과 技術〉誌가 올해로 11주년을 맞게 된 것을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보다 좋은 내용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편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대초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절대적 과제로 태동된 우리의 방위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국의 불안정과 불법적인 勞使紛糾로 우리 방위산업은 유사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에서 계속되어온 불법 노사분규에 따라 조업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결과 軍의 전력화 계획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크나큰 유감이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 防衛産業振興會는 앞으로 불법적인 노사분규의 방지를 위해 각 기업이 前向的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질서가 존중되어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방산업계의 자율적 성장기반 구축과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동시에, 한·미 방산회의 등 민간주도의 해외권력을 더욱 활발히 모색하고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軍事專門誌로서 방위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온 〈國防과 技術〉誌가 오늘을 맞이 까지 성원해주신 회원사, 관계당국과 장병,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평안하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1990년 1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 장 柳 纘 佑